



[뉴스]
50년만에
바뀌는 주류세
소주 오르고 맥주 내릴 듯
02



Economy

코스피	2140.67 (0.00)	코스닥	729.31 (0.00)
금리 (연평균)	1.69 (+0.01)	환율 (원/달러)	1135.10 (-1.70) (3월29일)

깐깐해진 회계감사... 상장사-감사인 곳곳 충돌

(회계법인)

회계사 전성시대 빛과 그림자

(1) 거미줄 회계감사

공인회계사(CP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몸값도 천정부지다. 신 외부 감사법 시행에 따른 기업 감사가 총 총해졌기 때문이다. 신 외감법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기업의 입맛대로 회계 감사를 할 경우 그 책임을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가 떠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감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회계사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이유다. **(편집자주)**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논란은 작년에 이슈가된 탓에 수월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회사에 투자했을 때 투자대상회

신외감법 도입 첫 보고서 감사시간·인원 ‘역대최대’ 기업의 감사인 바뀔 경우 전 재무제표 문제될 수도

사에 대한 가치평가문제가 골치거리였다.”(바이오기업 상장사 IR 담당자)

“회계감사인이 자료를 보고 심리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기업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힘들다고 난리더라.”(회계 논란 상장사 IR 담당자)

“입사 이래 가장 많은 일을 했다. 감사할 때 기업과의 충돌도 빈번해 역대급으로 힘든 감사였다.”(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회계 시장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기업, 2018회계연도 감사 내용〉

시가총액	종목	감사시간(시간)			감사인력(명)		
		당기	전기	증감	당기	전기	증감
1	삼성전자	50401	46576	8.2%	126	126	0.0%
2	SK하이닉스	11967	10644	12.4%	44	33	33.3%
3	LG화학	14918	12385	20.5%	71	50	42.0%
4	현대차	26534	23172	14.5%	70	63	11.1%
5	셀트리온	3426	2945	16.3%	38	22	72.7%
6	LG생활건강	9595	8583	11.8%	45	43	4.7%
7	POSCO	21732	22510	-3.5%	50	41	22.0%
8	삼성바이오직스	1938	1320	46.8%	22	22	0.0%
9	NAVER	14760	12923	14.2%	54	48	12.5%
10	SK텔레콤	15888	13680	16.1%	46	42	9.5%

/자료=각사

(新) 외감법 도입으로 지난해 회계 감사에 들어간 감사 시간과 인력이 크게 증가한 것. 회계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계법인은 보다 많은 시간과 고급 인력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메트로신문이 코스닥 사

총 상위 20개 기업(코오롱티슈진 제외)에 투입된 감사시간을 조사한 결과 총 4만5003시간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만 시간(32%)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감사인 투입도 늘었다. 이들

기업에 총 340명의 감사인이 투입됐다. 이는 전년보다 27.3% 늘어난 수준이다. 감사시간과 감사인원을 늘려 기업의 회계 감사를 깐깐하게 했다는 의미다.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기업의 감사시간도 대폭 늘었다. 20개사가 공시한 감사내역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감사에 총 29만 5923시간을 썼다. 지난해(27만 1404시간)보다 9.0% 증가한 수치다. 감사인원 역시 901명에서 1033명으로 14.7% 늘었다.

이처럼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 투입 시간을 늘린 이유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 영향이다. 올해 발표된 감사보고서가 신외감법 도입 이후 첫 보고서 때문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면 서 다음 회계연도에 감사인이 바

꾸면 과거 재무제표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면서 “해당 기업의 감사인이 바뀔 경우 대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회계 감사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수·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들이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더욱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으로 회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시간과 투입 인력이 늘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감사시간이 코스피 상장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다. **(8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가상공간 터치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연 모습.



자율주행개발실장 이진원 상무가 28일 '2019서울모터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러닝 영상인식 카메라센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품사 모비스, SW투자로 자율차 세계기술 확보

2년간 인력 2배·투자금 확충
3년내 전방 카메라 센서 적용
글로벌 선도업체와 대등하게
'객체인식 성능' 구현 하기로



자율주행카메라 센서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독자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영상인식 기술의 핵심인 객체 인식 성능을 글로벌 선도업체와 대등한 수준으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원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개발실장(상무)은 지난 28일 간담회에서 “1초도 조 단위 딥러닝 컴퓨팅 기술은 영상인식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수작업으로 축적한 데이터의 양이 자율주행 영상인식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던 시대는 끝났다”고 전했다.

현대모비스는 카메라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현대차와 협업을 강화한다. 완성차와 공동 개발을 통해

앞으로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을 자율주행을 위한 전방 카메라센서뿐만 아니라 360도 써라운드뷰모니터(SVM)에도 수평 전개할 예정이다.

주차지원 용도로 활용된 써라운드뷰모니터에 객체를 탐지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지속 주행 상황에서 전방뿐만 아니라 측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제동 등 자동제어가 가능해진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영상인식 기술의 확대 전개를 통해 카메라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영상인식 기술을 이미 개발 완료한 독자 레이더와도 접목해 카메라·레이더간 데이터 융합(센서퓨전)을 통해 센서 성능을 높이고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년

간 국내외 기술연구소에서 영상인식 전문인력을 2배 수준으로 확충했고, 국내 객체인식 업체 스트라드비전(Stradvision)과 중국 얼굴인식 업체 딥글린트(Deep Glint) 등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 안텍스(Yandex)와 내년까지 '로보택시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KAIST와 공동개발 중인 딥러닝 데이터의 고속처리 기술도 상반기 중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는 “딥러닝을 활용한 ICT 기술 확보를 통해 자율주행·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해외부실학회 참석사실 확인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집 3채' 투기의혹·자질논란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철회 조치를 받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 조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를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해외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해외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중

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자명을 철회하게 됐다”고도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8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질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3채의 집 때문이다. 이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이어졌다. /우승준 기자 dn1114@

국토교통부 최정호(61) 다주택 소유와 재네 판매 중여, 부동산 투기 의혹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및 정점
공정거래위원회 김연철(55) 과거 SNS에 올린 각종 '박탈' 시비와 이념편향성 발언 논란	해양수산부 문성혁(61) 간접보유 위법 논란, 세 차례 이상 위장전입 의혹, 장년 한국선급 독해제용 의혹
행정안전부 진영선(59) 공상인사 인건 토지 시세차익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61) 자네에 대한 중여 및 종합소득세 지급 납부, CJ E&M 사외이사 시절 친(親)대기업 행보
행정안전부 진영선(59) 공상인사 인건 토지 시세차익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박성현(50) 중소벤처 2천4000여명 지원 지급 납부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63) 의무성 출생 아들 출회 유력, 해외 부실학회 참석,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특례 의혹	지명 철회